



numbers  
vol. 279

한국인의 종교 인식: 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

가나안성도 증가세 지속...20대 기독교 청년 44% '출석 교회 없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의 20대 남녀 정치인식 비교
- ②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2025. 3. 18.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가나안성도 증가세 지속... 20대 기독교청년 44% '출석 교회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종교 측면에서만 봐도 탈종교화 현상, 세대갈등/통합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는 이들 종교/종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개신교인, 즉 기독교인의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알기 위해 비기독교인을 비교군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넘버즈 <279호>는 이 가운데 종교·신앙 활동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다. 종교·신앙 활동에 대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현안에 대한 기독교인/비기독교인 인식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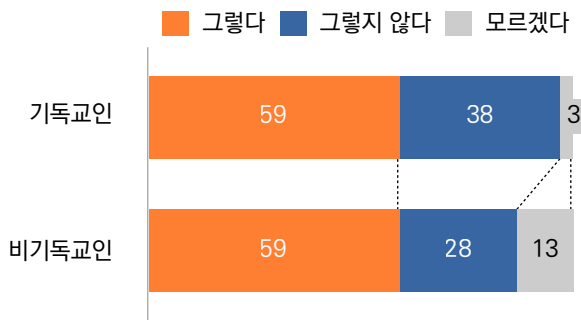
구 분	기독교인 조사	비기독교인 조사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전국 만 18세 이상 비기독교인 남녀
표본 규모	총 1,058명 (유효 표본)	총 1,094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0\%p$	
자료 처리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일 ~ 11월 22일(10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 01

## [종교 소속의 변화: 탈종교화와 가나안성도의 증가] 기독교인 10명 중 6명,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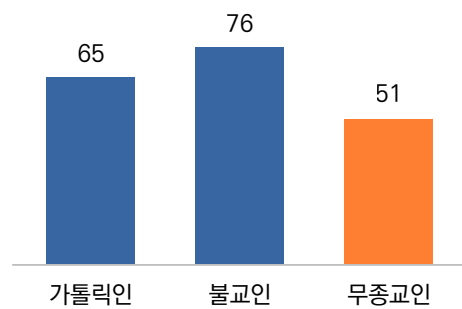
- 종교 단체에 소속하지 않아도 종교 생활이 가능할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10명 중 6명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독교인의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비기독교인 수준과 비슷해졌음을 의미하며, 탈종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다만 종교별로 보면 불교인, 가톨릭인 등 타 종교보다는 '기독교인'의 종교 단체 소속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눈에 띄는 점은 오히려 '무종교인'의 경우 '종교 단체 소속되지 않아도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톨릭인, 불교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종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종교 생활 가능 여부\*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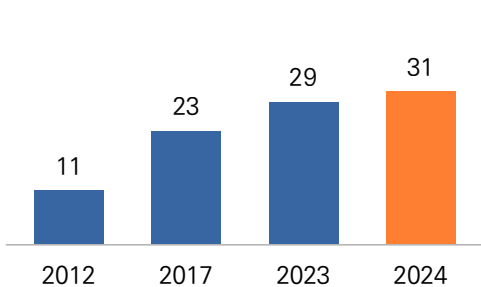
[그림] '종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종교 생활 가능하다' 비율 (비기독교인, 종교별,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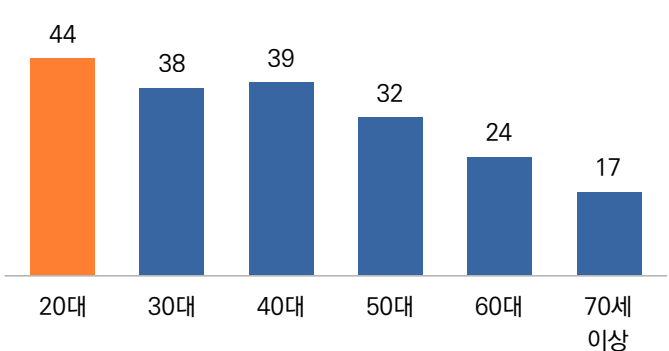
## 가나안성도 증가세 지속...20대 기독교청년 44% '출석 교회 없다'!

- 탈종교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가나안성도의 증가를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자료에서 보면 2012년 교회 비출석 기독교인, 즉 가나안성도는 11% 수준이었는데 2017년 20%를 넘어섰고, 2023년 29%까지 올라갔다. 본 조사인 2024년에는 31%로 30%대에 진입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종교성 약화가 뚜렷하다. 20대가 44%로 '출석 교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와 40대도 각각 38%, 39%로 중노년층 세대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림] 교회 비출석 기독교인(가나안성도) 추이\* (기독교인, %)



[그림] 연령별 '출석 교회 없다' 비율 (2024, 기독교인, %)



\*2012, 2017, 2023년 조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각 해당연도 자료

# 02

## [신앙 실천과 종교적 의미의 변화]

### 모든종교인/무종교인, 종교생활의 가장 큰 목적: '마음의 평안'(1위)

-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물은 결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 무종교인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부터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종교 목적이 이제는 '진리와 구원' 같은 근본적·초월적 차원이 아닌 '마음의 평안, 인격 성숙'과 같은 부수적·기능적 차원에 더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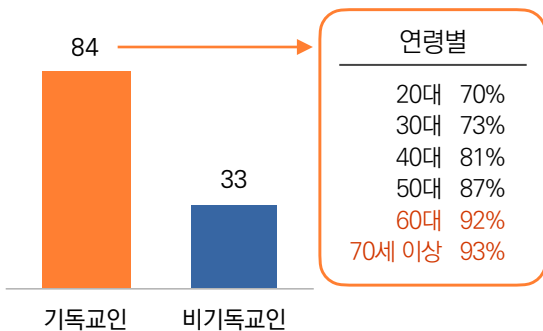
[표]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종교별, 상위 3위)

	기독교인	가톨릭인	불교인	무종교인
1위	마음의 평안 (46%)	마음의 평안 (65%)	마음의 평안 (72%)	마음의 평안 (66%)
2위	진리와 구원 (38%)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구원 (12%)	인격 성숙 (9%)	인격 성숙 (8%)
3위	인격 성숙 (6%)	인격 성숙 (8%)	진리와 구원 (5%)	진리와 구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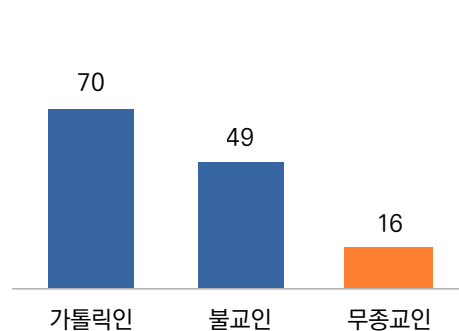
## 무종교인 6명 중 1명도 '평소에 기도한다'!

-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기독교인의 대부분(84%)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70%로, 60대 92%, 70세 이상 93%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청년층에서 가나안성도 비율이 높은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도생활 지표에서도 젊은 층 기독교인의 종교성이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별로 보면 가톨릭인 70%, 불교인 49%가 각각 평소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무종교인의 경우도 16%가 평소 기도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6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평소 기도 여부 ('기도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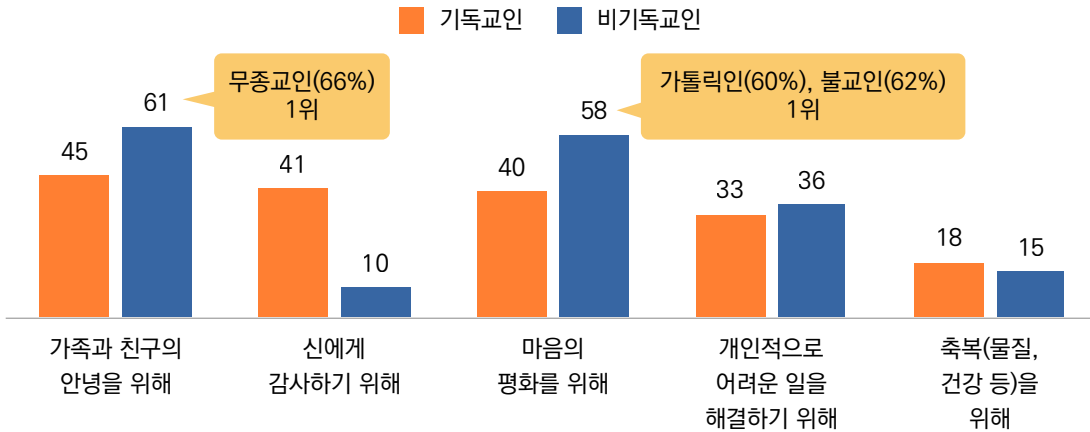
[그림] '평소에 기도 한다' 비율 (비기독교인, 종교별, %)



## 기도하는 이유,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모두 ‘가족과 친구의 안녕’ 최우선!

- 이번에는 평소에 기도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기도의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1+2순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가족과 친구의 안녕을 위해’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종교별로는 ‘무종교인’은 기독교인과 동일하게 ‘가족과 친구의 안녕을 위해’(66%)를 기도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가톨릭인’과 ‘불교인’의 기도의 이유 1위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각각 60%, 62%)였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앞서 언급한 ‘종교의 목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이유’ 역시 종교의 기능적 차원(가족과 친구의 안녕, 마음의 평화)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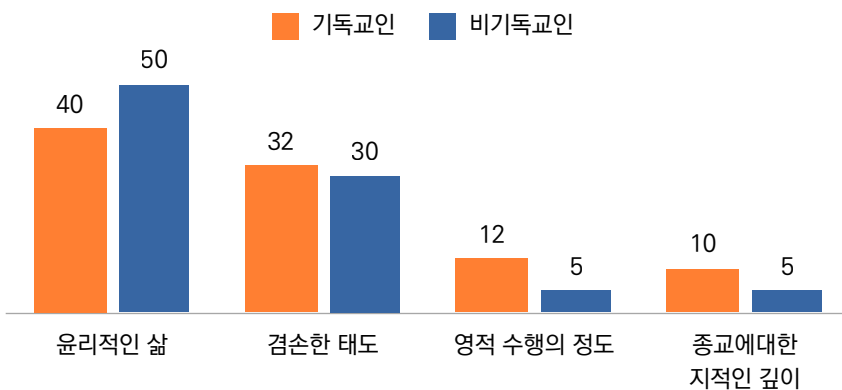
[그림] 기도를 하는 이유 (‘기도한다’ 응답자 기준, 상위 5위, 1+2순위, %)



## 바람직한 신앙인의 기준, ‘윤리적 삶’과 ‘겸손한 태도’!

- 바람직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 신앙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윤리적인 삶’과 ‘겸손한 태도’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보다 겸손과 윤리적인 삶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내는 셈이다.

[그림] 신앙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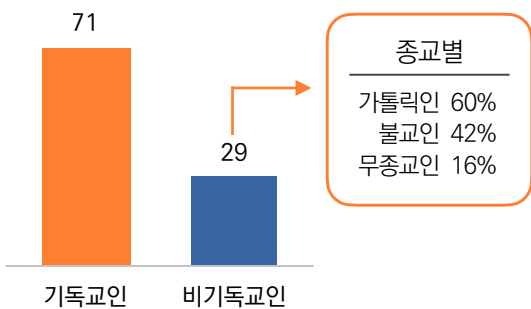
\*모르겠음 응답 제외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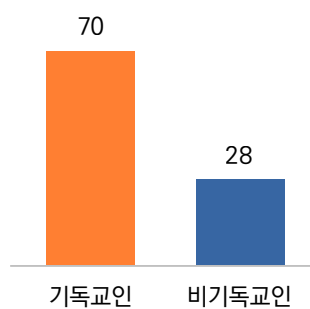
## [사회적 위기와 기독교: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한계] 사회적위기시종교도움된다,기독교인71%vs비기독교인29%

-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종교가 도움이 되는지를 묻은 결과, 기독교인의 71%가 '그렇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29%에 그쳐 두 집단 간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종교별로는 '사회적 위기 시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톨릭인' 60%, '불교인' 42%, '무종교인' 16%로 나타나, 종교인 중 기독교인의 종교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교회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기독교인' 70%, '비기독교인' 28%가 '그렇다'고 응답해 위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이 사회적 위 기 속에서 종교와 교회를 중요한 의지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사회적 위기 시 종교 도움 정도  
(‘매우+ 대체로 그렇다’ 비율\*, %)



[그림] 사회적 위기 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 정도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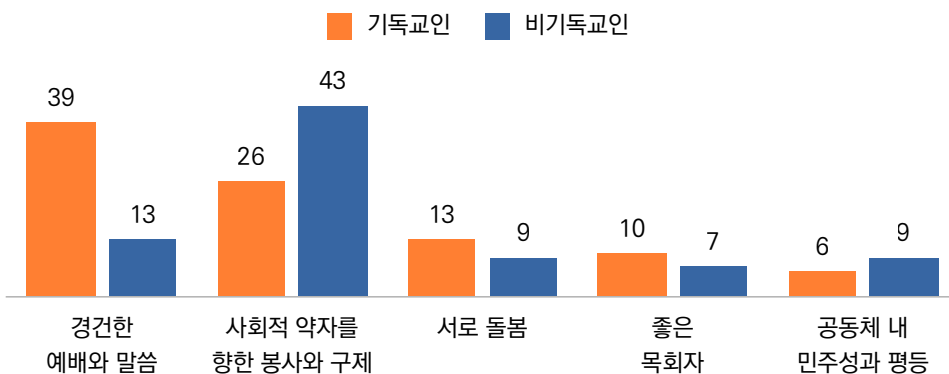


\*4점 척도

## 좋은 교회의 기준, 기독교인: 예배, 비기독교인: 사회적 책임 실천(봉사)!

-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경건한 예배와 말씀'(39%),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26%), '서로 돌봄'(13%) 순으로 응답했고, 비기독교인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43%)를 압도적으로 꼽았고, 이어 '경건한 예배와 말씀'(13%), '서로 돌봄'(9%) 등의 순이었다. 비기독교인은 교회의 역할 이 사회적 책임 실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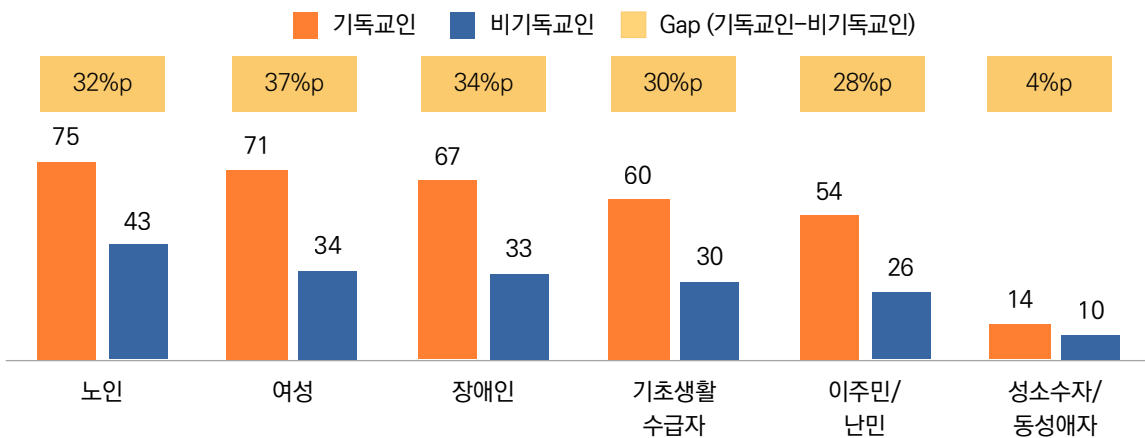
[그림]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상위 5위, %)



## 교회 내 '여성' 안전 인식, 기독교인-비기독교인 간 37%p 차이!

- 교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안전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각각 물었다. 기독교인의 경우 '노인'(75%)의 교회 내 안전도를 가장 높게 응답했고, '여성'(71%), '장애인'(67%), '기초생활수급자'(60%)도 60% 이상이었다. 반면 '비기독교인'의 교회 내 안전도 인식은 '노인' 43%, '여성' 34%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절반에 못 미쳤다.
- 특히 '여성'의 교회 내 안전도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가장 큰 인식 차를 보였는데, 이는 교회의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교회 안팎의 온도 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 다만 '성소수자/동성애자'에 관한 기독교인(14%)과 비기독교인(10%) 간 교회 내 안전도 인식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 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안전도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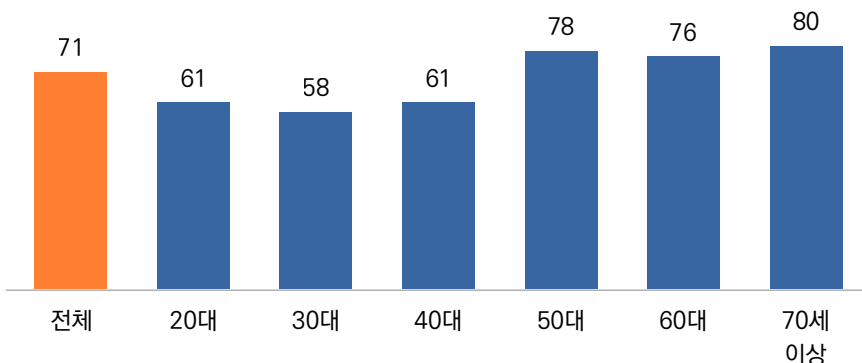


\*4점 척도

## 교회 내 여성 안전도, 젊은 세대일수록 낮게 평가

- 교회 내에서 여성이 안전한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본다. 20대 61%, 30대 58%, 40대 61%로 40대까지는 교회 내 안전도 평가가 평균(71%)보다 낮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70% 후반 이상을 기록했다. 젊은 세대가 고연령층보다 교회 내 여성의 안전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별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안전도 인식 (기독교인,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 04

## [종교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정치적 태도] 기독교인에 관한 무종교인의 호감도, 한 자리수(9%)에 불과

-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종교별로 살펴본다.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가장 높게 응답했고, 무종교인의 경우 '불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 가톨릭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호감도가 2순위(38%)였으나 기독교에 대한 가톨릭인의 호감도는 4위(21%)였고, 불교인(19%)과 무종교인(9%)의 기독교 호감도도 4~5위로 나타나 기독교인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불신과 반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종교인별, '매우+대체로 긍정적이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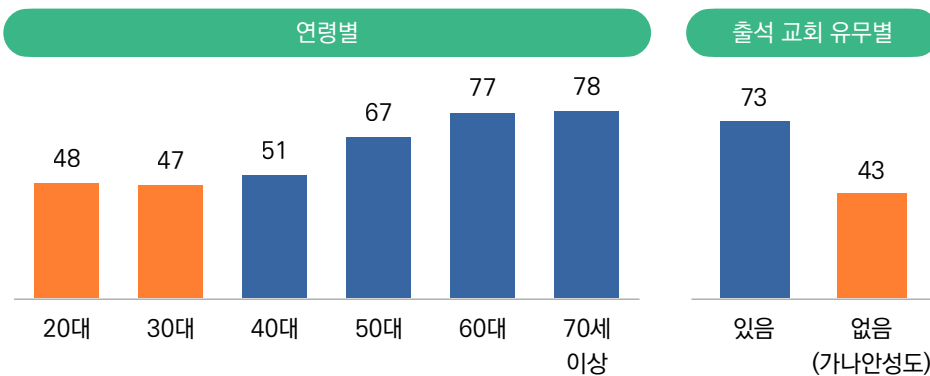
응답자의 현재 종교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독교인	기독교인(63%)	가톨릭인(38%)	불교인(25%)	원불교인(13%)	천도교인(10%)
가톨릭인	가톨릭인(78%)	불교인(57%)	원불교인(26%)	기독교인(21%)	천도교인(14%)
불교인	불교인(71%)	가톨릭인(54%)	원불교인(26%)	천도교인(20%)	기독교인(19%)
무종교인	불교인(40%)	가톨릭인(36%)	원불교인(13%)	기독교인(9%)	천도교인(9%)

\*5점 척도

### 동료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젊은 세대·가나안성도일수록 낮아

- 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연령별', '출석 교회 유무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대의 동료 기독교인에 관한 호감도는 48%, 30대 47%인데 반해 60대는 77%, 70세 이상 78%로 젊은 기독교인은 같은 기독교인에 대해 중노년층 대비 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출석교회가 없는 '가나안성도'(43%)의 경우 '출석 교인'(73%)보다 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낮았다.

[그림] '연령별/출석 교회 유무별' 동료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기독교인, '매우+대체로 긍정적이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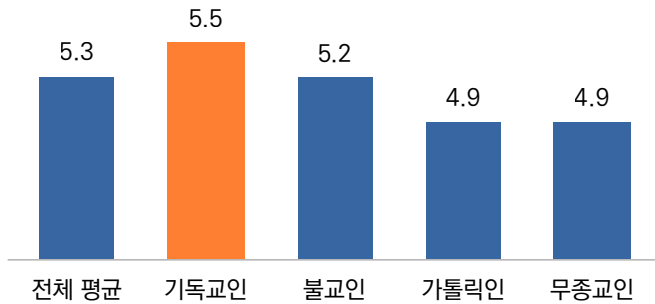


\*5점 척도

## 전 종교 중 기독교인이 ‘가장 보수적!’

- 주관적 이념성향 점수(진보 0점~ 보수 10점)는 전체 평균이 5.3점이었으며,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5.5점으로 가장 보수적이었다. 이어 ‘불교인’ 5.2점, ‘가톨릭인’과 ‘무종교인’이 4.9점으로 조사됐다.

[그림] 주관적 이념성향 점수\* (종교별, 진보 0점~보수 10점 기준, 점)



## 이번호 요약

### 1. 가나안성도 증가세 지속...20대 기독교 청년 44% '출석 교회 없다'!

- 2012년 한국의 가나안성도는 11% 수준이었는데(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4년 3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44%가 '출석 교회가 없다'고 응답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 2.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나, '마음의 평안'이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목적!

-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묻은 결과, 종교인, 무종교인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1순위로 꼽았다.

### 3. 무종교인 6명 중 1명도 '평소에 기도한다'!

-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물었더니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톨릭인 70%, 불교인 49%가 각각 평소에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무종교인의 경우도 평소 기도하는 비율이 16%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2024 개신교인 인식 조사\_“한국사회의 다층적 위기” 결과발표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 목회 적용점

사회는 교회를 이루는 테두리이고, 교회는 사회 속 기관이다. 따라서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인의 기독교인 호감도 순위는 4-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기독교인 스스로 평가한 기독교인 호감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여기에서 사회의 비호감이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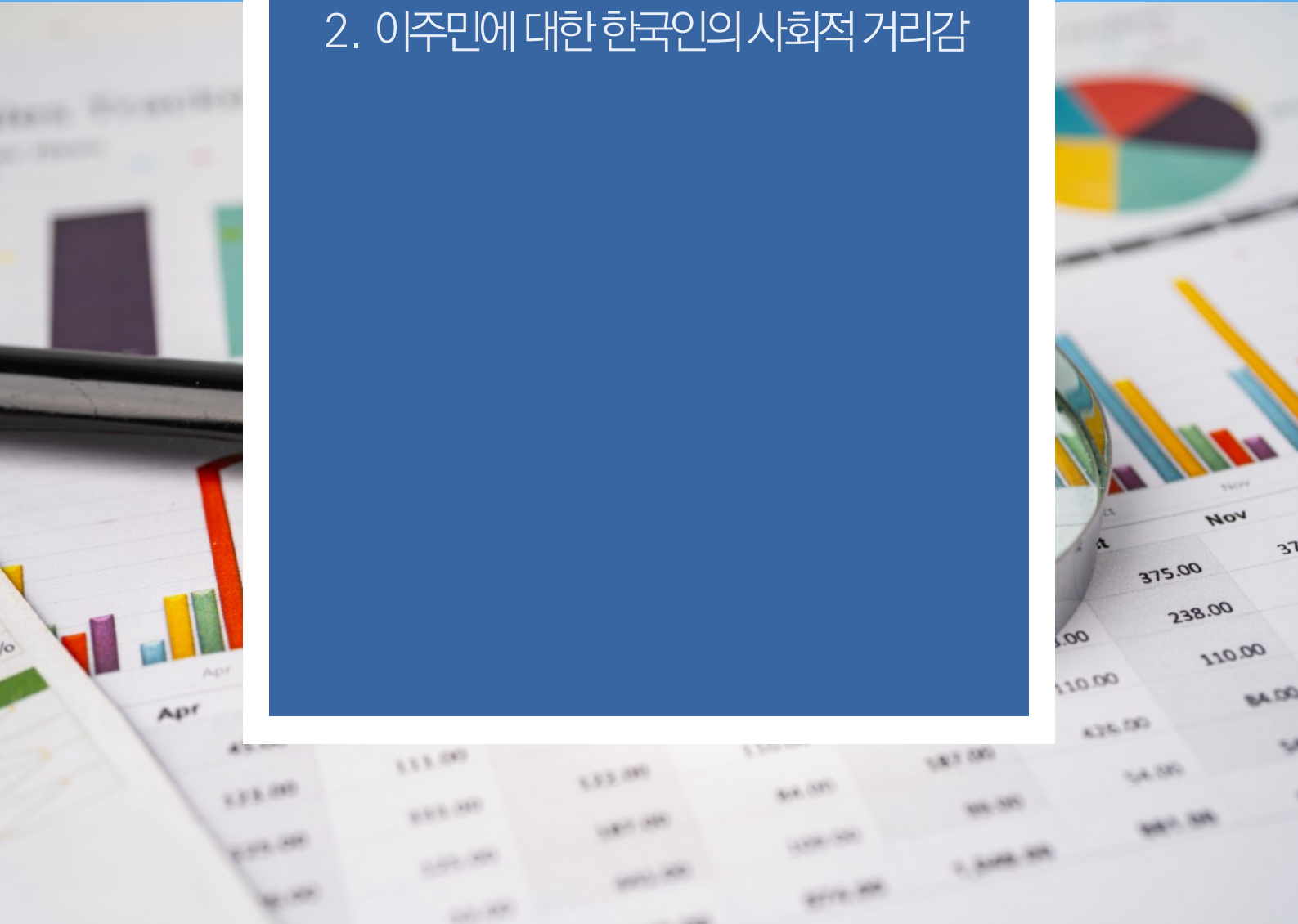
기독교인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전도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성도 개인적으로는 신앙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된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소극적인 도덕성 준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교회적으로는 비기독교인이 좋은 교회의 특성으로 꼽는 '사회적 약자 돌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관심을 덜 보이고, 국가 시스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찾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 가톨릭인, 불교인, 무종교인 모두 '마음의 평안'을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았다. 이 점에서는 종교별로 차이가 없다. 교회의 고유성이 안 보인다. 2위 응답에 주목하면 답이 있다. '진리와 구원', 곧 복음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이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만의 차별성이며, 교회의 본질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20대 남녀 정치인식 비교
2.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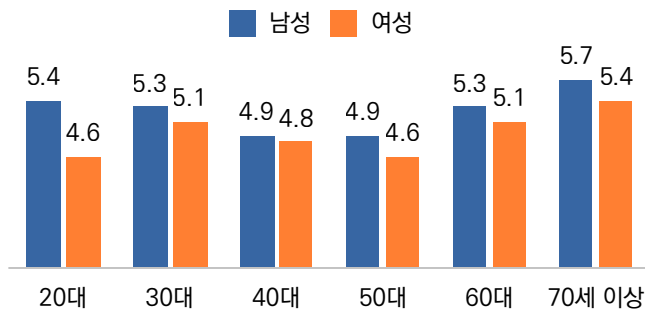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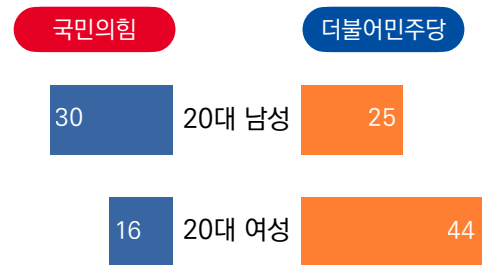
## [한국의 20대 남녀 정치인식 비교] 20대 남녀 정치 성향 차 뚜렷...남성은 '국힘', 여성은 '민주당'!

-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의 이념·정치적 성향, 주변국 호감도 등을 조선일보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조사하여 최근 발표하였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20대 남녀의 정치 인식을 들여다본다.
- 20대의 이념 성향을 확인하고자 이념 성향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념 성향 지수는 0~10점으로 구성되며 0점에 가까울수록 진보,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20대 남성'의 이념 성향 지수는 5.4점으로 '20대 여성'의 4.6점과는 0.8점 차이가 났다. 40대 등 타 연령대에서 남녀 차이가 최대 0.3점인 것과 비교해 20대는 남녀의 이념 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갈렸다.
- 이는 20대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났는데 '20대 남성'의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30%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5%)보다 5%p 앞선 반면 '2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4%)이 '국민의힘'(16%)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다. 20대의 경우 같은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연령별 이념 성향 지수\* (일반 국민, 점)



[그림] 정당 지지율 (20대, %)



※출처 : 조선일보, 2030세대, 현 정치체제 만족도 가장 낮고 선거 불만은 높아, 2025.03.0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5/FV3IIJUH2JD6FMQCOIWE4LG36E/](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5/FV3IIJUH2JD6FMQCOIWE4LG3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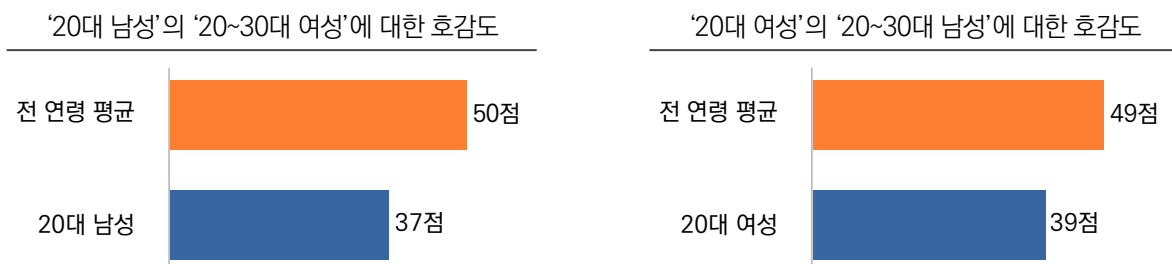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갈라진 20대 남녀... 지지 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 최악, 2025.03.07.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

\*0점(가장 진보), 5점(중도), 10점(가장 보수)

## 20대 남녀, '상호 호감도' 평균 이하로 크게 낮아!

- 20대 남녀의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본다. 20대 남성이 20~30대 여성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50%)인 중간에도 못 미쳤다. 20대 여성도 20~30대 남성에게 대한 호감도 점수로 39점을 줬다. 이 역시 전 연령 평균보다 10점 낮은 점수다. 20대 남녀 간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젠더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림] 20~30대에 대한 호감도 (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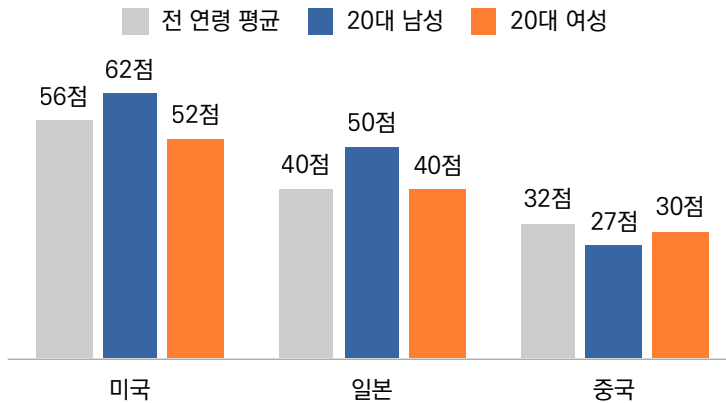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갈라진 20대 남녀... 지지 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 최악, 2025.03.07.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

\*0점(대단히 부정적), 50점(중간), 100점(대단히 호의적)

## 20대 남성, 여성보다 ‘미국·일본’에 훨씬 더 호의적!

- 주변국에 대한 20대의 호감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일본의 호감도는 20대 남성이 각각 62점, 50점으로 전 연령 평균을 웃돌았고, 여성의 호감도(미국 52점, 일본 40점)보다 10점씩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여성(30점)이 남성(27점)에 비해 높았다.

[그림] 주변국 호감도 (100점 만점\*)



※출처 : 조선일보, 갈라진 20대 남녀… 지지 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 최악, 2025.03.07.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0X74MEZRAXMUA/))

\*0점(대단히 부정적), 50점(중간), 100점(대단히 호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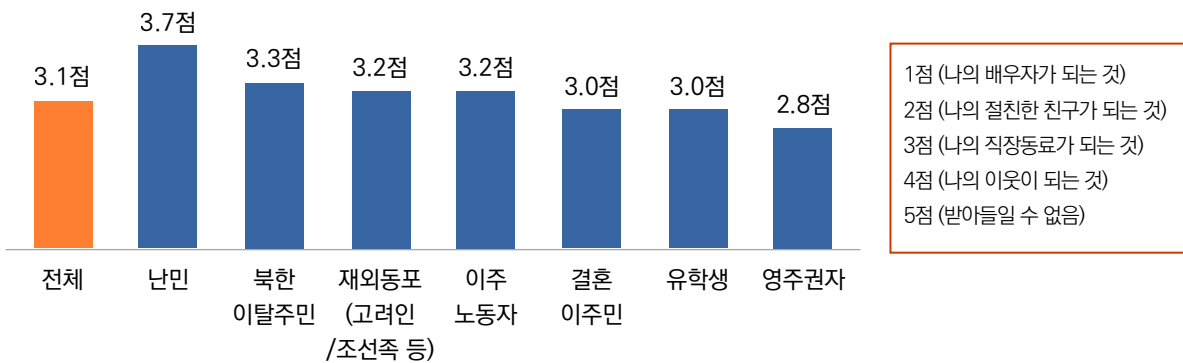


##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까지는 수용가능'

-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를 넘어섰다. 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주민과 사회통합'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통해 살펴본다.
- 난민, 북한이탈주민,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 집단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1점(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매우 가깝게 느낌)에서 5점(받아들일 수 없음, 가장 멀게 느낌) 중 선택하게 하여 각각의 평균 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은 3.1점으로, 자신의 직장동료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박스 참조)는 입장이었으며, '난민'(3.7점)을 가장 멀게 느끼고 있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이주 노동자' 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일반 국민, 5점 만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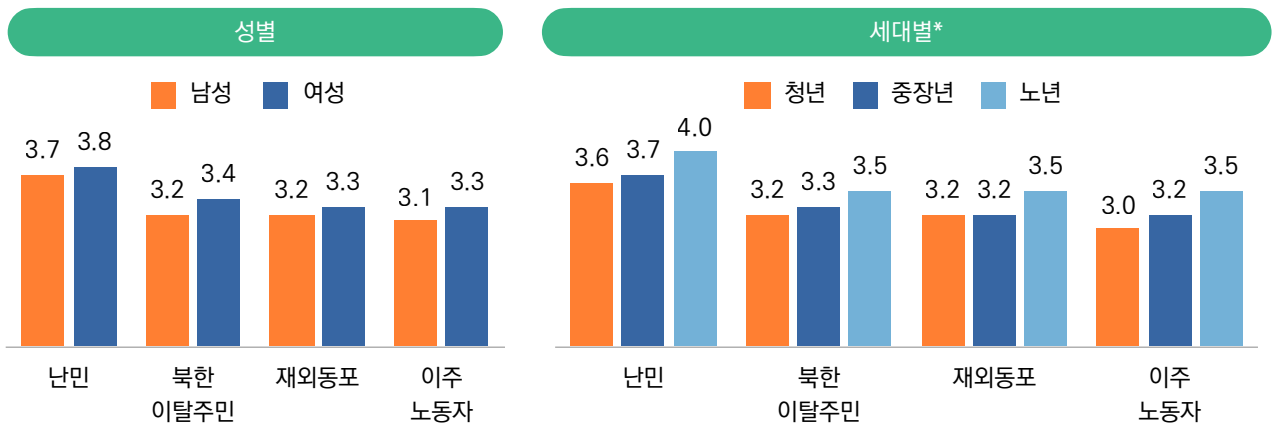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2024.12.

## 여성, 남성보다 이주민에 대해 더 거리감 느껴!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과 세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 이주민을 더 멀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성별/세대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5점 만점 평균, 상위 4위, 점)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2024.12.

\*청년(만19~34세 이하), 중장년(만35~64세 이하), 노년(만 65세 이상)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5호 \(2025년 3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정당별 · 기관별 신뢰 여부 등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6호 \(2025년 3월 2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 평가 등

### [2030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 뚜렷...무당층도 40%](#)

중앙일보\_2025.3.13.

## 사회 일반

### [\[샷\] "한국 자살률, 공중보건 국가비상사태"](#)

연합뉴스\_2025.3.12.

### [장애인 사망률, 국민 평균 5배...0~9살은 17배나 높아](#)

한겨레\_2025.3.12.

### [전세 사기 피해자, 작년 12월부터 매달 1000명 넘게 늘어...절반은 '30대'](#)

조선일보\_2025.3.10.

### [학생 23명, 교직원 26명...이런 '비대칭 학교' 전국에 310곳](#)

중앙일보\_2025.3.12.

###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중앙일보\_2025.3.15.

### [청년 3분의 1 "농업에 미래 있어 귀농"... 5년 차 소득 '월 300'](#)

한국일보\_2025.3.4.

### [2025 주변국 및 미중일 외교 관계 관련 인식 조사](#)

엠드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3.11.

## 아동 · 청년 · 청소년

### ["영유아 사교육비 월 33만원... 영어유치원 154만원"](#)

조선일보\_2025.3.13.

### [2년 새 고립·은둔 청년 비율 '쑥'...결혼·출산 의향 '뚝'\(종합\)](#)

연합뉴스\_2025.3.11.

### [지치고 불안한 청년, '쉬었음' 청년들 평균 22.7개월 무직](#)

한국일보\_2025.3.11.

###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연합뉴스\_2025.3.13.

## 노인

###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연합뉴스\_2025.3.12.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직장인 58% "주 4일제 하자"... '퇴근 후 연락 금지' 찬성도 82%](#)

한국일보\_2025.3.11.

['대출 공화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통화정책 '발목'](#)

연합뉴스\_2025.3.16.

[유연근무제, 저출산에 도움될까...기업 인사담당자 72% '긍정적'](#)

연합뉴스\_2025.3.13.

## 국제 · 환경

['여성 존중'... 한국이 미국보다는 낮다](#)

한국일보\_2025.3.12.

## 건강

[스트레스 꺼안고 잠 설치는 한국인... "매일 숙면" 7% 뿐](#)

동아일보\_2025.3.13.

["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연합뉴스\_2025.3.13.

## 기독교 · 종교

[체질 바뀌는 한국선교... 이주민 사역·파송 훈련 참가 늘었다](#)

국민일보\_2025.3.13.

[너와 나, 서로 돌봄], (국민일보)

["이젠 이웃 돌봄이다"... 한국교회 시대적 요청에 답하라](#) \_2025.3.18.

[이웃 돌봄 공감도, 신앙 성숙할수록 높다](#) \_2025.3.18.

[소그룹 참여 10명 중 7명 "성도 형편·사정에 관심"](#) \_2025.3.18.

[돌봄 사역 중단 경험 52%... 인력·재정 부족 가장 큰 이유](#) \_2025.3.18.

[목회자·성도 10명 중 8명 "이웃 돌봄은 사명"](#) \_2025.3.18.

## 트렌드

[직원은 없고 기계만 있었다... 노량진 곰탕집에도 들이닥친 '무인사회'](#)

조선일보\_2025.3.17.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연구소 소식



##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b>Upward</b>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b>Forward</b>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b>Inward</b> 그리스도의 몸 친교	<b>Outward</b> 예수의 섬김 봉사	<b>Onward</b>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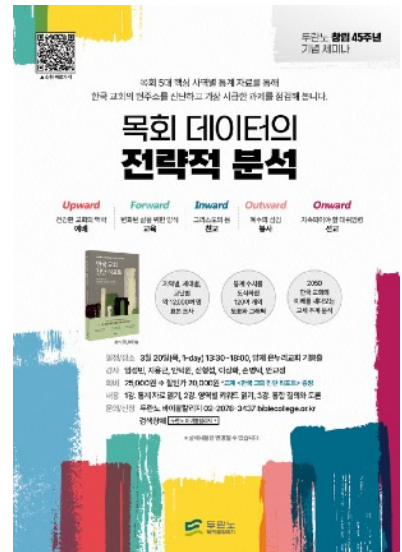
##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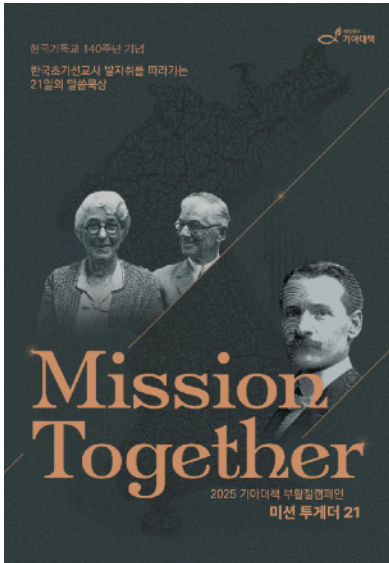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두란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 1)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13:30~18:00
- 2)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 3)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리더
- 4) 참가비 : 25,000원 → 20,000(20%할인)
- 5) 문의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세미나 등록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을 증정합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 [기아대책] 2025 부활절 캠페인 <미션 투게더 21>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헌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미션 투게더 21> 묵상집을 제작했습니다.

- 1) 책자 신청 : QR코드로 신청
- 2) 기간 : 2025년 3월 26일(수) 마감
- 3) 문의 : 02-544-9544



부활절 캠페인



\*카카오톡 '기아대책 미션파트너' 채널을 추가하시면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